



초고령사회에 요구되는 포장

Packaging in Super Aging Society

高岡眞佐子 / 에이징사회연구소 대표

1. 서론

2016년 7월 일본 총무성은 일본 총인구 1억 2,711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3,342만 명, 고령화율 26.7%로 사상 최고가 됐다고 발표했다(2015년 국세조사의 속보). 전 세대의 46.7%가 고령자이고, 1인 가구의 고령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남성 11.1%, 여성 20.3%).

오늘날과 같은 초고령사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포장상품의 '친절함=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이다. 다음에 몇 가지 항목을 통해 지금 고령자가 필요로 하고 있는 포장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고령자와 접근 가능한 디자인

(공사)일본포장기술협회가 주최한 '생활의 포장상품전'이 최초로 개최된 것은 1997년 10월이었다. 테마는 '생활에 매력 있는 포장상품'. 에이징사회연구소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생활의 포

장상품전'의 첫해부터 '고령자에 친절한 포장'을 콘셉트로 한 굿패키지를 소개해왔다. 20년이 경과한 지금도 '고령자에 친절한=접근 가능한 디자인의 포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20년간 포장은 서서히 고령자에게 친절하도록 진화해왔다고 생각한다. 1997년 당시에는 고령자를 의식한 포장을 좀처럼 찾을 수 없어서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상점·역의 플랫폼 등 거의 모든 가게를 찾아 헤맸다. 요즘에는 제조사들도 많이 인식해 '고령자에게 친절한 굿패키지'를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근 '고령자와 포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고령자 인구가 3,3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 여성은 87.05세, 남성은 80.79세로, '의료

[표 1] 고령자 수의 비교

년	총인구	고령자수	고령화율
1997년	1억 2,617만 명	1,981만 명	15.7%
2016년	1억 2,711만 명	3,342만 명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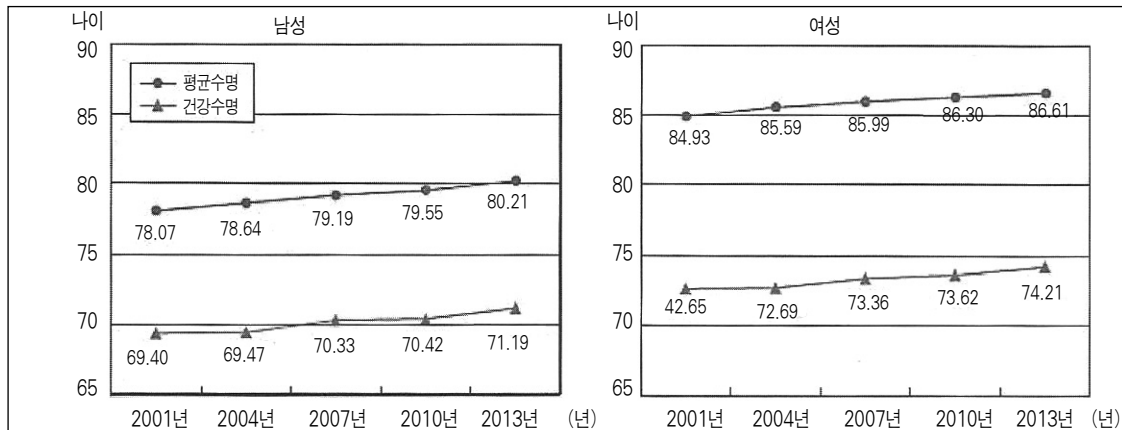
(출처: 국세조사 속보·인구추계로부터 작성)



[표 2] '굿패키지'의 콘셉트 : 에이징사회연구소 제안

<p>I. 사람에 우수하다=유니버설디자인</p> <p>① 개봉하기 쉬운 것 (예 : 개구부를 바로 알 수 있고, 큰 힘이 불필요, 간단 조작, 꺼내기 쉽다)</p> <p>② 표시를 찾기 쉬운 것 (예 : 문자나 그림의 크기·색의 조합이 시니어에게 적절하고, 식별·이해하기 쉽다)</p> <p>③ 취급하기 쉬운 것 (예 : 보존성이 좋고, 사용성이 좋고, 운반하기 쉽고, 리필하기 쉽고, 계량하기 쉽고, 안정성이 있다)</p> <p>④ 안전할 것 (예 : 갑작스러운 실수에도 안전, 손에 우수한 포장소재나 형상, 탭퍼 프리)</p> <p>⑤ 핵가족에 대응하고 있을 것 (예 : 1단위가 작고, 1인 가구나 핵가족용 사이즈가 되고, 분포·소량화·경량화되고 있다)</p> <p>⑥ 적절한 가격일 것 (예 :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구입하기 쉬운 가격)</p> <p>II. 환경에 우수하다=시니어 그린 컨슈머</p> <p>① 분리배출하기 쉬운 것 (예 : 폐기 시에 소재의 분별·식별하기 쉽고, 다른 소재가 조합된 경우에도 분별하기 쉽다)</p> <p>② 자원 절감에 협력적일 것 (예 : 리필하기 쉽고, 쓰레기양을 삭감할 수 있고, 콤팩트하기 쉽고, 회수·재생하기 쉽다)</p> <p>③ 안전성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 (예 : 환경에 우수한 소재의 이용)</p>

[그림 1]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추이



자료 : 평균수명 : 2001·2004·2007·2013년은 후생노동성 '간이생명표', 2010년은 '완전생명표'
 건강수명 : 2001·2004·2007·2010년은 후생노동과학연구비보조금 '건강수명의 미래 예측과 생활관병대책의 비용대 효과에 관한 연구', 2013년은 후생노동성이 '국민생활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산출

[사진 1] 개구부의 바로 옆에 크고 두껍게 칼로리가 표시되고, 뒤에 조리방법을 확실히 읽을 수 있는 고딕체로 쓴 파우치



기술의 진보, 건강지향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라고 일본 후생노동성은 분석하고 있다. 건강수명은 여성 74.21세, 남성 71.19세(후생노동성)로, 남녀 모두 평균수명과 약 10년의 차이가 있다. 활동적으로 장수하는 고령자도 많고, 자립이 촉진되고 있지만, 개인차는 있어도 신체적 특성이나 능력(근력·약력·지속성·시력·청력 등)은 나이가 들수록 저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고령자를 둘러싼 생활 조건을 살펴보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친숙한 생활재를 사용하려는 마음, 사용 편의성이 크고 '고령자 생활의 자립이나 쾌적함'에 도움을 주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 친숙한 생활로 직결하는 상품이야말로 접근 가능한(accessible) 것이 필수항목이 되고 있다. 다음에 구입→사용→폐기의 흐름을 따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본다.

1-1. 표시의 보기 쉬움

상품을 구입할 때, 포장에 표시된 그림은 그 상

품의 제1정보원이다.

식품위생법이나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등의 법정 표시는 말할 것도 없고, 개구부를 알리는 표시, 칼로리나 염분, 사용(조리)방법, 위험회피를 위한 주의표시, 폐기방법, 고객상담센터의 전화번호 등 빠지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정보, 상품 선택 시에 구입할지 말지를 결정짓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표시를 고령자의 절반이 '읽기 어렵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확인해야 하는 신착 정보도, 친절 표시도, 위험회피도 고령자들은 읽을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다.

고령자의 대부분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정도 차이는 있어도 시력 저하를 피할 수 없다.

고령자 중에는 의료 상 칼로리나 염분표시를 확인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다. 케이스에 표시된 취급법을 읽을 수 없으면 아예 작동시킬 수 없는 가정용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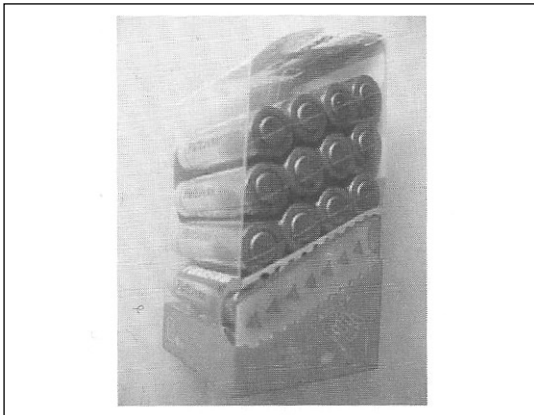
문자의 크기나 그림의 색 조합에 따라 식별, 판



[사진 2] 한번 밀면 적량이 나오는 조미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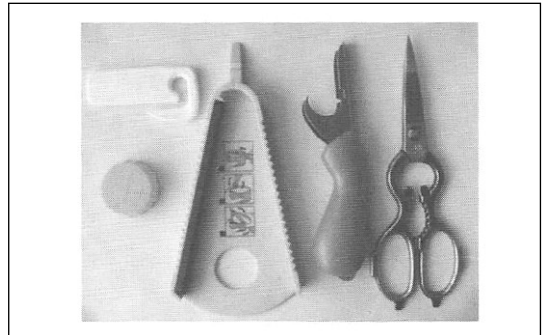
[사진 3] 꺼내기 쉬운 건전지 케이스



독이 어렵고, 위험회피(부상이나 화장 등)의 주의표시를 간과하기 쉽고, 오독·오인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장상품의 형태나 사이즈가 표시 면적이나 문자 크기를 제약할 수 있다. 고령자가 읽을 수 있도록 문자 크기를 공간 내에서 최대한 크게 하고, 폰트·색·콘트라스트 등도 배려해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표시를 실시해야만 한다([사진 1]).

[사진 4] 고령자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의 예



1-2. 개봉성

구입 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봉해야만 한다. 개봉하기 쉬운은 제1회 '생활의 포장상품전' 이후 항상 고령자 요망의 제1위로, 큰 과제의 하나이다.

손가락을 사용해 개봉하는 조작은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여행지에서 캡이 단단해 열지 못해 고전한 PET보틀, 만져도 반응이 없고, 개봉을 위한 노치나 슬릿을 찾을 수 없어서 찢기 어려운 과자 파우치, 개봉구를 찾을 수 없어서 조바심을 내다가 무리하게 포장을 벗긴 CD케이스 등이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자주 화제가 된다.

한번 밀면 적량이 나오는 조미료, 탭이 크고 벗기기 쉽게 만든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류, 작은 힘으로 개봉할 수 있는 건전지 케이스 등 제조사의 창의와 개선이 엿보이는 상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령자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다. 고령자의 다수는 개봉하기 쉬운을 상품 이용가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내용물을 견고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열

[사진 5] 액 흘림 없이 약한 힘으로도 확실히 질 수 있는 보틀



[사진 7] 개폐 시에 '찰칵' 이라는 소리로 알려주는 종이상자



[사진 5] 손가락이 미끄러지지 않는 화장품 캡



[사진 8] 역 스탠딩튜브들이 조미료



기 쉬움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고령자는 절대적으로 열기 쉬움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랜 생활경험을 살려 보조도구를 잘 사용해 개봉하고 있다. 마음에 드는 상품에 대해서는 '주방가위'나 '종이팩 커터'를 상비해 손가락 힘을 보조하는 노력을 하며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열기 쉬운' 세밀한 친절함을 희망하고 있다([사진 2]~[사진 4]).

1-3. 취급하기 쉬움

포장상품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력으로 자유

롭게 취급할 수 있다면, 고령자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줘 그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약한 힘으로도 확실히 질 수 있는 보틀, 손가락이 미끄러지지 않는 캡, 무거워도 쥐기 쉽게 손잡이가 달린 쌀 파우치, 개폐 시에 '찰칵'이라는 소리로 알려주는 보틀이나 종이상자, 역(逆) 스탠딩튜브들이 조미료,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나오는 화장용 크림이나 버터의 뱃바닥(船底)형 케이스 등 주변에는 취급하기 쉬운 포장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자에게 가장 어려운 작업은 점도가 높은



[사진 9] 리필하기 쉬운 컨디셔너 파우치



[사진 10] 분리배출 시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배려한 랩 케이스



[표 3] 유니버설디자인(UD)의 7원칙

1. equitable use
2. flexibility use
3. simple and intuitive use
4. perceptible information
5. tolerance for error
6. low physical effort
7.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 론 메이슨 제창

액상제품을 리필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샴푸나 컨디셔너의 리필이 어렵다고 한다. 자원 절감을 위한 환경배려형 포장이라고 해도 리필은 어렵다. 주출구에 약간 두꺼운 파이프를 내장한 디자인의 리필용 파우치는 따르기 쉽고 리필하기도 쉬워서 사용하기 쉽다고 한다. 고령자의 사용 실태나 '마음 속'을 추량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취급하기 쉬움과 개선으로 이어가고 있다([사진 5]~[사진 9]).

1-4. 안전성이 높을 것

개봉·취급·폐기의 모든 단계에서 포장상품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주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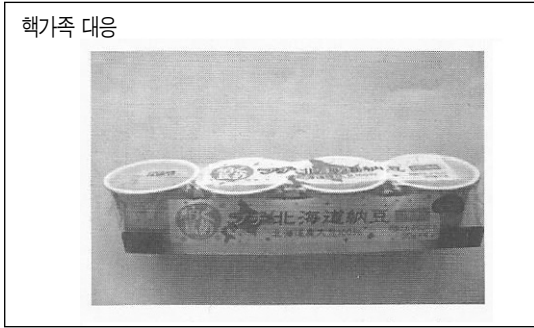
것이 론 메이슨의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표 3])에도 들어있는 '무심코 한 실수'이다.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을 경험한다. 고령이 되면 순간적인 반사운동이 느려 부상, 화상 등의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안전하게 취급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위험 회피가 되기도 한다.

전자레인지에서 꺼낼 때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빨간 문자로 눈에 띄는 표시를 한 종이용기, 거스리미가 나오지 않는 풀링의 캔, 분리배출 시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배려한 랩 케이스, 색깔별 캡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의약품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표시는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보기 쉬운 문자로 주의를 환기할 것, 포장의 색·소재·구조에도 위험 회피 대책을 실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진 10]).

1-5. 핵가족에 대응할 것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일본의 세대 규모는 해마다 축소하고 있다. 1인가구가 2.38명(2015년 국제조사 속보)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1인가구는 남성 11.1%, 여성 20.3%이다. 앞으로도

[사진 11]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사이즈(20g)의 컵들이 낫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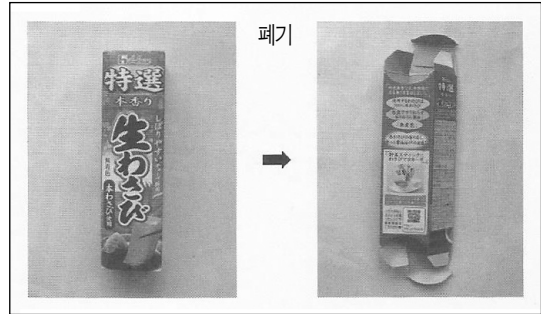
증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1인가구의 소비단위도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식품 로스량은 연간 642만 톤에 달한다(2016년 농림수산성). 그 절반은 가정에서 나오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전 세계 식량 수조량 약 320만 톤에 필적하는 양이다. 고령자가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백화점 지하에서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사이즈(20g)의 컵들이 낫토, 반찬 팩 등 '1인용', '해가죽' 등을 위한 시장 전개도 일반화 되고 있다. 식량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고령자 세대에 적합한 소비량 사이즈의 포장이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사진 11]).

1-6. 폐기하기 쉬움(분별하기 쉬움 · 쓰레기량 · 자원 절감과 리사이클과 환경 대응)

포장은 아무리 예쁘고, 운반하기 쉽고, 사용성이 뛰어나고, 편리하며 보존성이 좋아도 내용물을 사용한 후에는 폐기된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자원 절감의 관점에서 과잉포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들은 자

[사진 12] 외부상자의 윗면과 바닥면을 간단히 눌러 찌그러트릴 수 있는 조미료 패키지



치단체의 쓰레기 폐기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리사이클에 적극 동참하려고 해도 쓰레기의 분별배출작업이 부담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 · 알루미늄캔 · 플라스틱으로 분별하는 것은 물론, 부피가 큰 것을 작게 접고, 유리병이나 플라스틱보틀은 캡을 벗기고, 종이상자는 알루미늄 커터나 스테플러를 빼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또한 플라스틱만 해도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고, 한눈에 종이제품인지, 금속제품인지 판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포장소재의 종류를 바로 알 수 있는 표시와 약한 힘으로 간단하고 안전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포장이 고령자에게 적합하다([사진 12]).

II. 결론

4명에 1명 이상이 고령자라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자의 자립을 돕고, 고령자가 살기 쉽고 쾌적한 생활이 되는, 고령자를 배려한 액세서블 포장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한다. ☞